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 하 수*

목 차

0. 서 설
1. 한국어 수요자 집단
2. 한국계 집단의 상호 교류 문제
3. 새로운 교육 문화적 제도의 구축
4. 하나의 시도,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하여

0. 서 설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와 같은 외국어의 경우는 대개 학습자들이 이익의 문제를 분명히 생각한다. 그 이익이란, 예컨대, 영어 사용 지역에 자유로이 드나든다든지, 영어로 국제 관계를 결재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취직한다든지, 더 높은 직급에 일찍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이익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굳이 제도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매우 인기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교사를 길러내고 좋은 제도를 엮어 가는 데에 주로 관심을 쏟으면 된다.

일본어의 경우도 영어만은 못하지만 꽤 인기가 있는 언어이다. 일본어 문학파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도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왜냐하면 이 언어도 이익을 꽤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날에는 보잘 것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어(한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한국에서는 대개 영어, 일본어, 중국어(한어)의 순서로 해당 언어의 인기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과거에 영어 다음에 줄을 섰던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매우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언어 분포의 판세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한편 우리의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보다는 그 학습자의 수가 대단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에 비해서, 더 나아가서 인접한 러시아어보다도 그 학습자 집단이 두텁지 못하다.

그리고 그 집단의 대표적인 속성이 주로 외국의 소수민족을 구성하는 교포, 교민, 혹은 동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민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셈이다. 민족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학습자들을 모국 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서 민족적인 감성을 중요하게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족교육은 현지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한 눈총을 받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 현지 사회의 통합성을 깨뜨릴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육의 사회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셈이다.

이제 우리의 한국어 교육은 그 성격과 교육의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민족의 뿌리 찾기」라는 문제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조금 더 나아간 경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도 세계에서 알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애국적인 소망」도 곁들어졌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구태의연한 사고로 손가락질 받게 되어 버렸지만 북한의 문화어를 압도해 보겠다는 「냉전적 사고」의 유산도 있었다. 이 세 가지의 사고 방식, 곧, 민족의 뿌리 찾기, 애국적 소망, 냉전전 사고 등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 사업에 일종의 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지만 거꾸로 한국어 교육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기능도 하였다. 지금 다가오는 세기에는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새로운 판세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세기에는 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 주는 것은 경제력과 무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국경을 수비해야 하고, 경제력을 늘이기 위해서 무력으로 남의 영토를 침략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은 무한히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다른 민족은 일단 적개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민족은 절대선이고 다른 민족은 절대악으로 그려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경제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이미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해외 자본의 유치를 통해 경제력을 키워 가고 있으며, 노동력의 반출을 통해 인구 조절을 꾀하고 있다.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게 된 중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통합의 거센 바람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민족 교육이나 애국적 소망 혹은 반공적 공세 등의 전략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시각과 경험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기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 이념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민족 교육이나 시민 교육이나 하는 문제이다. 민족 교육이라고 하면 모국 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현지 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민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이미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시민 사회로 녹아들어 간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아직도 민족 공동체가 시민 사회를 분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민족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실질적인 이익도 별로 없으면서 사회적인 갈등만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의 언어 교류는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정한 공동체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구 사회의 시민 교육은 각 민족 공동체의 틀을 해체하지도 않고 그 내부에 수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서부로 이민 간 한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물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달랐지만 동남아의 화교들과 일본에서 한국인 교포, 그리고 한국에서 소수민족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 등은 아직도 민족 공동체를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경계하는 시각에서 비롯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은 일종의 사회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통하여 민족 정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의사소통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던 한국어를 민족간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사고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민족 교육의 의미와도 관계가 깊은, 한국어 교육을 애국 운동의 하나로 보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일제 시대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는 당시 식민지 통치에서 배태되어 나온 감성으로서 일련의 애국적인 사회 운동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사고를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전이시켜 문제를 보는 것은 중요한 오류이다. 이러한 사고는 이제 각 민족 공동체의 내부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민족간 문제로 전환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민족간의 갈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애국주의로 풀려고 할 때에 어떤 비극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한의 문제는 이러한 전략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이

아직 탄탄하게 짜여 있지 않은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미묘한 정치 문제에 함부로 이용당해도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문화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남한의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남북 문제와 한국어 교육 문제를 뒤섞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에 대해 그리 깊은 신경을 쓰지 않듯, 문화어와 표준어의 차이 역시 지금까지 학습한 경로만 보여 줄 뿐, 언어의 정통성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은 구체적인 수요자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어떠한 과제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한다.

1. 한국어 수요자 집단

통계청의 인구 통계에 의하면 남한은 약 4,685만 명, 북한은 1993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인구가 약 2,208만 명으로 양쪽을 합해서 약 6,894만 명이 남북한에서 살고 있다. 동시에 이 숫자는 한국어(조선어)를 일상생활과 공식 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인구의 수이기도 하다.

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의 수는 약 5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표-1> 참조) 물론 이밖에도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 한국계 혼혈, 완전 귀화자, 그리고 북한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집단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어의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어의 사회적 수요가 적으면 이미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도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 것이며, 반대로 그 수요가 많다면 모르던 사람도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의 해외 한국계 주민은 부분적으로는 한국어 사용자로, 또 나머지

부분도 일단 잠재적인 한국어 수요자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해외 한국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한국이나 자신의 종족 공동체 내에서 찾는 경우가 많고, 현지 주류 사회에서 삶의 기반을 닦은 경우는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외 거주 한국계 인구가 560만을 넘어선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양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교민이나 동포의 수 외에도 1999년 현재 이미 14만 2300명을 넘어선 해외 입양아들도 잠재적인, 그러나 대단히 감성적인 한국어 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는 모국을 포함하여 약 7,500만 정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숫자가 많은 편이나 적은 편이나 하는 문제는 핵심을 비껴 가는 계량적 관점일 뿐이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계 주민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첫째는 142개국이라고 하는 광역성이다. 사실상 세계 어디에나 한국계 주민이 있다는 말이다.

둘째는 분포의 불균형이다. 북미,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등 특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셋째는 모국 사회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확장되는 모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곧, 모국 사회의 동남부는 일본, 서북부 및 서부는 중국, 동북부는 독립국가 연합과 비록 경계선을 직접 맞대고 있지만 태평양 건너 북미지역 등 모국과 지리적 연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조건을 품고 있다.

넷째는 집중적인 분포 지역이 각각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한국계 주민은 과거 식민지 종주국에 이주한 집단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식민지 사회에서 이탈해 나간 집단이 그 기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미 지역은 탈식민지화 이후의 일어난 자본과 노동력 이동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단속성 때문에 러시아쪽 주민과 중국쪽 주민, 그리고 일본쪽 주민과 북미쪽 주민 등 사이에 이렇다할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교류가 드문 편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인 축적 속에

서 진행된 화교들의 내부 의사소통 구조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한국계 주민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국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확장해 나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곧, 한반도의 약 7천만을 중심으로 밖으로 뻗어나간 약 520만의 집중 분포 해외 주민은 합쳐서 7천 500만 정도의 공동의 의사소통권을 이룬다는 뜻이다.

(표-1)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2천명이상)

국 가	한국계 인구(명)
미 국	2,057,546
중 국	2,043,578
독립국가 연합	660,214
캐 나 다	486,857
브 라 질	111,041
호 주	46,916
아르헨티나	31,248
독 일	25,669
뉴질랜드	12,710
영 국	10,836
파라과이	10,412
프 랑 스	10,265
필 리 핀	10,137
인도네시아	10,078
태 국	7,218
이 태 리	5,495
싱가포르	4,150
과테말라	4,128
대 만	3,324
스 페 인	3,232
말레이시아	2,310
멕 시 코	2,279
리 비 아	1,441
기 타	38,641
전 체 (142개국)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이주민 분포 현상이 한국의 이웃 지역에서는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곧,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주민들은 대개는 북미 지역으로의 이민은 해 왔지만 인접 지역으로는 눈에 띄는 집단 이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중국이나 러시아계 이주민이나 중국에 러시아계나 일본계, 러시아에 중국계나 일본계가 큰 규모의 소수종족 집단을 형성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한국계 주민들만이 인접지역에 큰 소수민족 집단을 형성한 셈이다.

여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최근 취업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1996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약 21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¹⁾ 이 중 61%는 흔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s)이고, 32%는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을 명분으로 편법적으로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이며, 단지 6%만이 취업사증(employment visa)을 발급 받은 진짜 ‘합법취업자’이다. 그들의 신분이야 어떻든 그들 역시 한국어 의사소통망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로 일상적 생활과 직장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이들의 의사소통 조건은 매우 취약하여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워 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는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출신 사회의 다양성이다. 대개 이들은 중국, 네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이디오피아 등에서 이른바 송출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묘하게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 지역은 앞에서 말한 한국계 주민들이 집중 분포한 지역에서 빠져 버린 부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현실적인 혹은 잠재적인 한국어 수요자들을 자신의 지역 주변에 집중화시켜 놓은 형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것은 앞으로 한국어의 해외 보급의 기본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것은 남북한을 중심으로 서북과 서쪽의 중국 및 몽골, 동북쪽에는 독립국가 연합과 북미,

1) 최근(2000년 3월)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약 23만으로 나타나 있다.

동남에는 일본, 서남에는 동남 및 서남 아시아 지역이 분포하면서 제각각 독특한 한국어 사용자 내지는 학습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원만하게 개선되어 국경선의 긴장이 느슨해질 것 같으면 가히 폭발적인 의사소통망의 확장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2. 한국계 집단의 상호 교류 문제

남북한이 그 동안 경제적으로 자기 확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의 조선족과, 남한은 재일교포들과 밀접한 경제 활동을 해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남한 사회의 자본 규모 확대와 북한과 가까웠던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붕괴 현상은 그러한 종족지향적 경제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중심부인 남북한과 해외 한국계 주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극히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 뿐,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수단과 제도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한국계 주민들의 공식적인 주요 의사소통은 해당 사회의 주류 의사소통망에 포섭되어 있거나 다분히 게토 화되어 버린 소규모 사회(민단/총련, 한인회, 교회 등) 속에서 일정한 한계를 그은 공적 의사소통으로 만족하는 정도이다.

가장 큰 까닭은 그들의 경제 활동이 해당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지 못한 편이라는 점이라고 본다. 게토화된 경제는 광역 의사소통망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게 되지 않고, 소규모의 사사로운 의사소통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들 각 지역의 이주민 정책과 소수집단 정책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 소련은 소수민족에게 정치적 권리를 비교적 폭 넓게 허용한 편이었지만 한국계 주민은 역사적인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기본적 자치는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치 조직과 행정망까지 자율성 혹은 자치를 인정하지는 않은 편이었다. 일본은 자민족 중심의 폐쇄적인 소수민족 정책으로 한국계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당하며 살아

야 했다. 북미는 그 태생이 민족국가가 아닌 이민국가이니 만큼 소수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민을 개별화시키는 사회 구성으로 말미암아 소수민족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통적 의사소통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정치적 요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는 지난날의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결과 폐쇄의 구도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어의 국제적 쓰임새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망을 봉쇄한 대립 구도였으며, 이에 남북한의 언어 규범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폐쇄 회로를 더욱 상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휴전선과 국경선들은 대단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서 인적, 물질 교류를 매우 어렵게 하였고, 이에 따라 언어적 소통도 극히 희박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와 비교적 의사소통이 쉽게 되는 일본 사회에서조차 총련과 민단이라는 분단 효과가 나타나 범한국계 주민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문화적 요인 가운데 언어 문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계 주민들의 상호 소통을 어렵게 하였다. 우선 언어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러시아어,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적인 차이가 매우 심하다. 더구나 일본어를 포함하여 그 표기 수단이 한글, 한자, 가나, 끼릴 글자, 알파벳 등 모두 현격히 다르다. 자칫 현지 사회의 문화적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기만 할 경우, 그리고 종족적 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정책적인 뒷받침이 허약할 경우에는 견잡을 수 없이 모국 문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교적 언어 구조가 비슷한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몹시 심하여 서로의 언어를 장려하거나 공동의 의사소통망을 만들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²⁾

종교적으로도 중국식의 유교 문화, 일본식의 불교 문화, 러시아식의 정교회 문화, 북미식의 개신교 문화 등, 하나의 결집된 문화코드를 만들

2)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등장하기도 하나, 우선 한자는 문자 자체가 대단히 전근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도저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어권과 러시아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품고 있다. 더구나 최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지난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일본식 인식 방법이라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에는 그 기초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만 했다.³⁾

교육 부문은 비교적 근대화 과정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학제와 교육과정은 적잖은 차이가 있어서 서로 손쉽게 학적을 이동하거나 통합된 교과 내용을 공유하기는 꽤 어려운 형편이다. 이 점은 유럽 사회의 교육 제도가 보여 주는 통합성과는 대단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

3. 새로운 교육 문화적 제도의 구축

한국어의 통합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단 규범의 공통성을 확보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보급하며 어떤 매체를 이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외국인 및 해외 한국계 주민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1950년대 외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한국어 교육 기관인 '명도원'이 설립된 이래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에는 정규 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수준에서만도 10여 군대를 넘어서고 있고, 그 밖의 단기 과정이나 사설 학원까지 합하면 이미 30여 군대를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주로 이주 집단을 중심으로 <표-2>과 같은 분포가 형성되어 있다.

<표 2> 해외 한국계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1995년 현재)⁴⁾

	한국 학교	한국교육원	한글 학교
학교 수	15개국 21개교	13개국 37개원	71개국 1,294개교
학생 수	4,168명	74,766명	82,173명
교사 수	389명(파견 50명)	53명(파견)	7,840명

3) 물론 이 종교적 다양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동의 신앙, 공동의 예식과 절차, 공동의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종교를 배타적 코드로 보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방향 설정과 실천력에 따라서는, 더욱 진취적 태도가 지배하는 사회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단지 종교적 공통성은 종족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종교적 다양성은 서로간의 차별성을 종족적 코드로 전환하기 쉽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4) 대한민국 교육부, 『해외 한글학교 현황』, 1995 참조

이와 함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의 동향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110여 곳의 대학에 한국어과 혹은 한국어 과정 및 강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97년 현재 148개 대학에 학과 혹은 과정이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그 외에도 중국에 약 30여 군데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자꾸 늘어나면서 폐강되기도 하는 등 그리 안정적인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 수강생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질적인 면, 곧 지속적으로 배우는지의 여부, 교민집단보다 비교민집단의 참여도 부분 등은 아직 매우 뒤지는 편이다. 최근에 실시된 미국의 SAT-Ⅱ 시험에서 한국어 과목 수험자의 대부분(90% 이상)이 한국계 학생이었는데 반하여 일본어 과목 응시자의 70%는 비일본계 학생이었다는 보고는 아직 한국어의 해외 보급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 준다.

〈표 3〉 미국 내 대학의 외국어 수강생 현황과 5년전 대비 증감률(1995년도 가을학기)⁵⁾

순위	1	2	3	4	5	6	7	8	14
외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태리어	중국어	라틴어	러시아어	한국어
수강생 수	606,286	205,351	96,263	44,723	43,706	26,471	25,897	24,729	3,343
증감률(%)	+13.5	-24.6	-27.8	-2.2	-11.9	+35.8	-8.1	-44.6	+46

최근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어 학습자 집단 가운데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도 일단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각 사회활동 기관을 통하여 약간의 교육과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해 당하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현재 일부 교회에서 비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비교적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는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23만을 헤아린다. 또 이들은 일정기간 국내에서 일하고 다시 귀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 혹은 한

5) 조선일보 1996년 10월 11일자 기사로 바탕으로 작성함

국문화와 접촉을 계속하거나 할 수 있는 인원은 점점 늘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또 언어교육학적인 조사를 볼 것 같으면 한국 사회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터에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 배타주의, 제국주의 등 그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이 일정한 체류 기간을 통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인들과 공동의 의사소통망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적대감이 대단히 심하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인도적 처리, 노동시장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지금 얻고 있는 이윤보다 더 큰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 언어교육의 밀그림 확보와 정책적 실천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기업, 관청,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교육과 이들을 보호하는 전문 인력의 확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와 해외의 범한국계 주민들의 의사소통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유용한 매체의 확보 없이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출판물 수준으로는 그리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북미,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등의 거점에 한국어 신문이나 잡지가 꾸준히 발간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는 정부 차원 혹은 그 수준에서의 실천력 없이 민간 차원에 떠맡기거나 해서는 단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정책적 지원의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 방송 정책이다. 외국인 집단과 해외를 향한 방송 시스템인 아리랑 방송과 최근의 위성 방송은 이러한 의사소통망을 향한 첫걸음으로 그 성과에 따라 다른 매체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는 전자매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 만하다. 한국 사회의 컴퓨터 산업, 인터넷 산업의 발전, 그리고 최근의 멀티코드의 개발과 보급은 이에 대해 충분히 희망을 가지게 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 부문은 비교적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발전에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규모의 비영리적 네트워크와 영리적인 네트워크를 구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하나의 시도,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하여

이상의 교육 문화적 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95년부터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7년에 처음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이다. 이 시험은 표준화된 한국어 능력 시험제도를 통해 한국어 교육기관의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방법을 표준화하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교민들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와 아울러 그 결과를 한국어 학습, 국내외 대학에의 유학, 국내외에서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회(1997)에는 국내 및 해외 3개국에서, 제2회(1998)에는 국내 및 해외 5개국(중국과 미국 추가)에서, 또 제3회(1999)에는 국내 및 해외 6개국(몽골 추가)에서 실시하였고, 작년은 네 번째 해로서 일본의 몇 지역과 러시아에서 추가로 실시되었다.⁶⁾ 그동안 시행처를 학술진흥재단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이관하여서(1999), 인정 기관의 실체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또한 1997년의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애당초 일년에 두 번씩 시행하려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한번으로 축소(매해 10월 말, 넷째 일요일)시키게 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 시험은 한국어에 대한 이론적 능력이 아닌,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평가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숙달도가 가장 낮은 1등급부터 가장 높은 6등급까지 여섯 등급으로 나뉘어 각 등급마다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되고, 이해는 듣기와 읽기로, 표현은 어휘 및 문법과 쓰기로 나뉘어 있다. 문항 수 1회 시험에서는 모든 등급이 30-35문항으로 구

6) 지난해 치른 제4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 일본 : 삿포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니카타,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나가노, 도야마, 교토, 오카야마, 시모노세키, 에히메, 오키나와
- 중국 : 북경, 상해, 장춘, 청도
- 미국 : 뉴욕, 로스앤젤레스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키르기스스탄 : 비쉬켈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
- 몽골 : 울란바토르

성되어 있었으나, 고급의 경우 작문과 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의 출제를 고려하여 2회 시험부터 조정하여 현재 1급-4급은 30-35문항, 5급-6급은 25-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3회 급별 응시현황 및 합격률과 지난해 치러진 2000년 제 4회 한국어 능력시험의 지원자 현황과 4회 급별 응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원 자	응 시 현 황		합 격 현 황	
			응시자	응시율(%)	응시자	응시율(%)
1급	1회	877	703	80.1	253	36.0
	2회	1,108	801	72.3	283	35.3
	3회	1,099	949	86.4	776	81.8
2급	1회	386	327	84.7	141	43.1
	2회	641	526	82.1	278	52.9
	3회	833	718	86.2	583	81.2
3급	1회	547	460	84.1	104	22.6
	2회	505	455	90.1	201	44.2
	3회	733	638	87.0	399	62.5
4급	1회	315	272	86.3	113	41.5
	2회	401	369	92.0	166	45.0
	3회	531	474	89.3	343	72.4
5급	1회	343	303	88.3	58	19.1
	2회	354	324	91.5	42	13.0
	3회	448	404	90.2	229	56.7
6급	1회	224	209	93.3	42	20.1
	2회	218	188	86.2	41	21.8
	3회	186	173	93.0	122	70.5
계	1회	2,692	2,274	84.5	711	31.3
	2회	3,227	2,663	82.5	1,011	38.0
	3회	3,926	3,445	87.7	2,513	72.9

1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4회 급별 응시현황

국가(지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비고(3회)
서울	57	43	91	150	159	108	608	496
부산	5	7	15	18	12	11	68	55
광주	2	5	9	6	3	1	26	26
대전	1	16	33	20	22	11	103	66
소계	65	71	148	194	196	131	805	643
일본	604	405	417	314	280	219	2239	1428
중국	0	17	62	116	38	28	261	244
미국뉴욕	190	224	85	6	2	1	508	322
미국LA	98	113	70	38	7	4	330	319
카자흐스탄	140	108	74	38	8	1	369	415
키르기스스탄	80	46	38	29	12	1	206	0
우즈베키스탄	393	188	58	9	6	0	654	355
러시아	102	77	121	31	9	1	341	0
몽골	23	74	88	46	22	10	263	200
소계	1,630	1,252	1,013	627	384	265	5,034	3,283
총계	1,695	1,323	1,161	821	580	396	5,976	3,926